1,2,3 RUTC 응답 25 :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빌3:7-14) 10/1/2023

절대 망대의 개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절대 망대에 대한 언약과 축복이다.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절대 망대의 언약과 축복이 왜 중요할까? 적어도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이다(사43:1-4).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구속했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엄청난 의미인지를 놓치고 산 것이다.

둘째, 그만큼 내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엡5:8)

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가? 그 분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했다.

빛을 가진 내가 빛을 잃어버린 순간 내 옆의 사람들이 같이 어두워지고, 어둠에 당하는 것이다. 요셉 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밭의 식물도 다 복을 받았다.

셋째,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이다(행1:8의 예루살렘이 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전1:26-29). 너무 자기만을 의지하고, 높이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로 가득차 있어 세상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에게 세가지 목표가 있다.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평생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실 수 밖에 없는 세가지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

1.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나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7-9절).

 “복음화”란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 색깔이 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3저주가 끝났고, 3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복음화의 첫 단계이다.

① 3저주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원죄의 본성(롬3:10, 롬5:12)이고, 그 배후에 사단의 저주이고(요8:44,

 요10:10),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다(롬3:23, 엡2:2-3). 그것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 6가지를 만든다.

 바울은 이 3저주 속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7-8절).

 그 속에 상처, 운명, 실패,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이 다 있다. 거기에 안 잡혀 산다는 말이다.

② 3생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이다(고후5:1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그 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요14:16-18). 그 분의 생기(능력)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다(요20:22). 내가 가는 곳에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눅17:21)

2) 이제 우리는 이 3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삶이라고 했다. 이것이 복음화의 본론이다.

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복음 각인이라고 한다.

②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세가지를 찾아내라. 그때 복음이 뿌리를 내린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위로, 힘, 갱신하고 도전할 것을 찾아내라.

③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복음이 누림이 되고, 체질이 된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분의 눈과 내 눈이, 그 분의 기준과 내 기준이 같아진 상태이다.

 방법은 모든 것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꾸고(9절), 모든 문제 사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고(롬8:28),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위기를 당할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히12:1-2).

 그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다

2.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나를 보좌화 시키는 것이다(10-12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1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이 그 보좌 앞에 서는 삶이 되면 된다.

1) 내가 그 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하고 24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 분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다.

 구원받아 놓고도 내 마음과 생각조차 다스려지지 않아서 상처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사단에게 당한다.

 보좌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도록 기도하라(잠4:23, 잠16:32, 롬14:17). 그때 어둠의 생각이 차단된다.

2)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24기도).

 바울은 내가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다(12절).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7망대 기도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축복, 3시대 살리는 능력과 축복,

 공중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축복(막9:29), 237 살리는 능력과 축복,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과 축복(CVDIP),

 세가지 뜰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축복이다. 이때 내 학업, 산업, 경제, 미래까지 보좌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3. 이때 내 안에 써밋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나를 써밋화 시키는 것이다(13-14절).

1) 바울은 자기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13절).

 진짜 잡아야 할 축복이 있기 때문이었다. 영적 써밋의 축복이다. 7대 여정의 언약에 담긴 결론이 이것이다.

2) 그가 가진 푯대(목표)가 있다고 했다(14절상).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에서 주신 것이다(천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붙잡을 것이다(행9:15).

① 모든 이방인을 살리는 목표였다. 그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하는 우리의 목표이다.

 다민족 사역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써밋이고, 영적 써밋이다.

② 모든 왕들, 세상의 써밋들을 살리는 목표였다. 영적 써밋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강대국에 보내고, 써밋으로 세운 이유가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다

③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목표였다.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이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디도, 디모데 같은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운 것이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세상의 미래이다.

3) 많은 어려움, 핍박,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부르신 분이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고 했다(14절하).

 영적 써밋은 세상에서 받을 인정과 상이 필요없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헌신하며 사는 것이다.

결론-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나를 구원해서 복음화, 보좌화, 써밋화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모든 문제, 사건, 학업, 산업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한다.